

## 아기장수 전설과 씻김굿의 소설적 수용\*

—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공포감정의 표현과  
해소 방식을 중심으로 —

이 주 미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아기장수 전설의 서사구조와 공포 상황
- III. 아기장수 모티프의 소설적 변용
- IV. 씻김굿을 통한 공포감정의 해소
- V. 마무리

※ 이 논문은 2017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lt;국문 요약&gt;

이 글은 이청준 소설이 아기장수 전설과 굿 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 심층적 의미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소재로 하고 있는 『신화를 삼킨 섬』은 공포 감정을 다루는 여러 양상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 나타난 공포감정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작가가 이 작품에서 제주 4.3 항쟁과 5.18 광주 민주항쟁을 개별적이고 특수한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비극적 사건의 중첩을 통해 인간적 한계를 직시함과 동시에 미지의 위협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청준이 이 땅에서 되풀이되는 역사적 비극을 이야기하며 아기장수 모티프를 차용한 것은 되풀이되는 패배가 되풀이되는 항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섬사람들의 공포 감정은 아기장수 신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된다. 작가는 아기장수의 죽음 후 영웅도 용마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려 했던 섬사람들이 다시 꿈과 기다림을 통해 삶의 동력을 얻는 모습에 주목한다. 인간이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 모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씻김굿은 인간의 문제를 신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기구제의 수단이다. 씻김굿의 계기가 되는 죽음은 인간의 삶이 유한함을 일깨워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상이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공포감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죽은 영혼을 달래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씻김굿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시화함으로써 공포감을 해소하는 인간적 지혜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공포감, 무력감, 유한함, 인간적 모순, 아기장수 신화, 씻김굿.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 아기장수 전설은 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활용되어, 1926년 「신민」 10월호에 발표된 최서해의 단편소설 「저류」부터 김승옥, 최인훈, 이청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전설과 현대문학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김동리의 『황토기』, 『사반의 십자가』는 아기장수 전설과 함께, 『을화』는 바리공주 설화와 함께 논의되기도 하였다.<sup>1)</sup>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청준의 장편 『신화를 삼킨 섬』은 작가가 아기장수 전설을 소설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나누어 배치하여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 주도로 행해질 ‘역사 씻기기’ 굿과 마을 심방들이 자발적으로 행해 온 씻김굿이 대립하는 내용의 이 소설은 중심인물들의 신분이 무당이고 핵심 소재가 굿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 역시 굿의 의미 탐색에 집중되어 온 편이다.<sup>2)</sup>

- 
- 1) 박유희,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의 변용과 의미」, 『현대소설연구』 10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우한용, 「현대소설의 고전 수용에 관한 연구 - 『을화』의 ‘바리공주’ 수용을 중심으로」, 전북대 논문집 25집, 1983
  - 2) 한순미는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역사적인 기억의 형성, 치유와 해원의 방식,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점층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서사의 흐름은 매듭-씻김-풀이의 굿마당의 이미지”(「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37쪽)로 형상화되었다고 보았으며, 고인환은 “굿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 향유한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전통 양식임과 동시에, 서구 중심의 근대 담론이 지닌 폭압성을 폭로하는 저항 담론”(「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 4.3 항쟁의 전용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115쪽)이라는 전제 하에 탈식민성과의 관계 속에서 주제를 탐색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명기도 “소통, 지금 여기, 구체적 기억을 통한 공동운명체의 동질성을 느끼는 것이 국가 권력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유력한 자질”(「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 -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7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354쪽)이라는 측면

아기장수 전설은 지역에 따라 여러 이본이 존재하나 대체로 선천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 아기장수가 시대적 한계 때문에 좌절한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시대적 한계란 ‘평민의 사회 진출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폐쇄된 사회’<sup>3)</sup>를 의미한다. 작품의 비극적 정서 해명을 위해 이 전설을 메타포로 활용하고 있는 『신화를 삼킨 섬』은 반복되는 역사적 비극을 그 근원부터 이해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돋보인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을 배경으로 4.3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이 소설은 두 역사적 사건의 중첩을 통해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의 반복에 대해 사유한다. 『신화를 삼킨 섬』의 전체 서사 구조를 “제주 4.3이 광주 5.18로 연결되듯이 역사의 비극은 늘 우리 곁에서 반복된다는 원리를 신화의 겹구조에서 찾고 그 해원을 곁 한 마당으로 풀어보려 한 것”<sup>4)</sup>이라고 해석한 논의는 비극적 사건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공포가 항존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화를 삼킨 섬』이 다루고 있는 공포감정은 인간의 유한성을 확인시키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한 번에 종결되지도 예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실존적 고민에 맞닥뜨리게 한다. 이해되지 않는 미지의 사태가 공포감을 유발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재앙의 맥락과 위협의 정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초월적이고 압도적인 대상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생존의지의 적극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기장수 전설을 미래를 준비하는 진인의 이야기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민중의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관점<sup>5)</sup>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에서 곁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 3) 임철호, 「아기장수 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3집, 구비문학회, 1996, 204쪽
- 4) 연남경, 「신화의 현재적 의미 - 최인훈, 이청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363쪽
- 5)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103-127쪽

아기장수 전설은 진인이 확인되지 않아 사회적 긴장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활성화되고 재생산되는 이야기라는 점이 이 논의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전설과 굿은 한국인의 삶 속에서 제도종교에 버금가는 힘을 발휘해 왔는데, 그 힘이란 현실에 관여하는 상상의 힘을 의미한다. 이청준이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왔나」에서 “옛날 우리 고향에선 무서운 밤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마주 오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좀 전에 당신 앞서 길을 간 사람이 있었다’ 일러주고 지나쳐 가는 관습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건 없었건 그런 말로 상대방의 밤길에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다.”<sup>6)</sup>라고 한 바와 같이 상상은 인간적 지혜의 소산으로, 선행자가 부재하는 공포스러운 현실 속에서 미지의 사태에 대비하게 한다. 신화와 소설은 예측 불허의 공포를 견디기 위한 선행자 존재와 같은 것임을 염두에 두며 이 글에서는 이청준 소설이 공포를 견디는 방식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청준 소설에서 아기장수 전설과 굿 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해명하는 것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심층적 연관성을 통해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포감은 우리에게 ‘살아 있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돌보게 하므로<sup>7)</sup>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건설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II. 아기장수 전설의 서사구조와 공포 상황

아기장수 전설의 여러 이본 가운데 이청준이 작품의 소재로 채택하고 변용한 아기장수 서사에는 작가의 세계관과 주요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다. 『신화를 삼킨 섬』에 삽입된 아기장수 전설은 대략 다음과 같다. 프롤로그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자 후환이 두려운 부모

6) 이청준,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왔나」, 『장흥문화』 제121호, 1999

7)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 2001, 6쪽

가 용마바위 틈새에 세 자루의 곡식 부대와 함께 아이를 생매장한다. 그러자 소문을 들은 관가 군졸들이 아버를 앞세워 무덤까지 찾아간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군졸이 다그치자 아이의 아버가 사실을 고하여 바위가 열리고 아이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 이때 주인을 만나지 못한 용마가 뒷산 너머로 사라진다. 『신화를 삼킨 섬』은 제주도를 소설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소설에 삽입된 아기장수 전설의 서사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래옥이 정리한 아기장수 전설의 기본형<sup>8)</sup>에 가깝다. 이 기본형을 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날개 달린 아기가 출생함
2. 부모가 아들을 죽임
3. 아기가 유언(콩 닷섬 팔 닷섬 요청)을 남기고 물어달라고 함
4. 어머니가 관군에게 사실을 실토하여 아기가 두 번째로 죽음
5. 용마가 주인을 찾아 해매다 용소에 빠져 죽음

이처럼 이 작품의 아기장수 전설은 부모에 의해 살해되었다가 재생을 앞두고 관군에 의해 다시 죽임을 당한다는 일반적인 유형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비밀을 실토하여 불행을 초래한 인물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기장수 전설의 여러 이본에 나타난 어머니 형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 ‘현실적이고 보수적이며 이기적인 본능’<sup>9)</sup>이 드러난 경우, 둘째 ‘폭력이 횡행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혹과 회유를 감당하지 못한 인간적 욕망’<sup>10)</sup>이 드러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은 적극성의 정도에서 다

8) 최래옥,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설화』, 민족학회 편, 교문사, 1989, 282쪽

9) 최래옥, 위의 글, 318쪽

10)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 인식의 층위 - 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432-434쪽. 이와 비슷하게, 폭력적인 상황에서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부모의 숙명적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본 논의도 있다(김창현, 「아기장수설화에 나타난 한국 민중들의 생명관」, 『인문과학』 33권, 성균관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03, 118쪽).

소의 차이를 지닐 뿐 부정성을 지니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이 채택하고 변용한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아이의 두 번째 죽음을 초래한 아버지의 부정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이청준의 여러 작품과 에세이로 보건대 어머니에 대한 작가의 효심이 남다르기는 하나 그것이 아기장수 전설의 어머니 역할을 아버지로 대체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청준의 아기장수 전설에서 부모의 성별 차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신화를 삼킨 섬』의 아기장수 전설에 등장하는 아버지 형상에도 부정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 작품보다 3년 뒤에 나온 이청준의 동화 「아기장수의 꿈」(2006년 동화집 『사랑의 손가락』에 수록)에서는 여느 이본처럼 어머니가 불행을 초래하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객관적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기장수의 꿈」은 아기장수 전설의 여러 이본을 재구성하고 동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것인데, 특징적인 점은 『신화를 삼킨 섬』에서 뚜렷이 보이지 않던 제주도 아기장수 전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가의 횡포가 심하던 시절에 장수가 태어나자 부모가 아들이 잠든 사이에 날개를 잘라 보통사람으로 기르려 했지만, 힘과 용기를 빼앗긴 아기장수가 좁쌀 한 말, 붉은 팔 한 말, 검은 콩 한 말을 내어달라고 하고 집을 나간다. 집 나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싸릿대 세 개를 주고, 아버지에게 서른 날 짜의 비밀을 당부했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컸던 어머니’<sup>11)</sup>가 아들의 뒤를 밟아 비밀을 보아버린다. 아이가 진짜 장수가 되어 바위를 열고 나오기 하루 전날. 군장이 어머니를 끌고 바위계로 가서 바위를 없애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짓말로 위협하자 어머니는 사실을 고한다. 결국 아기장수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는다. 간단히 살핀 이 동화의 서사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아기장수형 전설 중에서도 홍업선 전설과

11) 이청준, 「아기장수의 꿈」, 『사랑의 손가락』, 문학수첩, 2006, 108쪽

유사하다. 다만 흥업선 전설에서 업선은 아버지가 후환이 두려워 날개를 잘라버린 후 장수 아닌 장사가 되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sup>12)</sup> 「아기장수의 꿈」에서는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 된다는 점이 다르다. 날개가 거세된 아기장수가 장사로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제주도 전설과는 달리, 「아기장수의 꿈」에서 ‘날개가 절제된 뒤에 그는 부모와 지배집단이 강요하는 불합리한 삶의 틀에 순응해서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홀로 은둔해 힘을 기르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냉철한 지성과 불굴의 의지를 지녔다<sup>13)</sup>는 점을 작가의 낙관적 세계관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후자 역시 아기장수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제주도 전설에서 날개의 거세를 아기장수의 죽음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 아기장수 전설을 연구한 현길언은 본토와 제주의 아기장수 전설을 비교하며 “본토에서는 장수가 완전히 죽는다. 그러나 제주는 장수가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는 ‘날개’만이 제거될 뿐이다. 제주 전설에 부모들의 태도는 날개가 달린 아들을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도록 회귀시키는 데 있다. 아들의 전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날개만을 거부하는 게 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의 특징이다.”<sup>14)</sup>라고 정리하고 있으나, 장수의 날개 제거를 바로 세속에 편승한 실리적 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징과 암시라는 문학적 장치를 염두에 둘 때, 미래의 구원자로 태어난 아기에게 날개는 꿈과 용기, 그리고 목숨과도 다름없는 것이기에 날개의 제거는 곧 장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신화를 삼킨 섬』과 「아기장수의 꿈」에서 작가 이청준의 관심이 날개를 제거했나 아기를 죽였나, 어머니가 죽었나 아버지가 죽었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극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

12) 현길언,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 - 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7, 18집, 한국언어학회, 1979, 292쪽 참조

13) 김환희, 「설화와 전래동화의 장르적 경계선 - 아기장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1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1, 92쪽

14) 현길언, 위의 논문, 299쪽

는 점이다. 아기장수는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 못한 채 가족과 지배 권력에 의해 죽게 된 불운한 영웅인데, 그 불행이 참담한 것은 바로 부모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친자 살해의 심리적 원인이 공포감에 있다는 점이다. 『신화를 삼킨 섬』의 아버지와 「아기장수의 꿈」의 어머니 심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가의 군졸들이 아버를 앞세워 찾아간 바위는 다시 옛날처럼 틈새가 닫혀 있어 아이의 무덤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 바위 속에 아이를 묻었다 말이나! 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바위 속을 갈라 보일 방법이 있겠구나. 그 방법을 말하여라.

의심쩍은 눈초리로 다그치고 드는 험상궂은 무장 앞에 아이의 아버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어디서 말씀을 소리가 세 번 들리고 나서 저절로 바위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는 겁에 질려 전날의 일들을 사실대로 고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던 말 위의 무장이, - 흠, 네 말이 정녕 사실이었다!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나선 손에 든 채찍을 몇 차례 세차게 휘둘러 제 군마의 엉덩이를 갈겼다. 그 바람에 말이 세 번 울었고, 더불어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번개와 천둥소리가 내리치며 바위가 문득 두 쪽으로 갈려져 열렸다. 그리고 그때 아이의 아버는 원통하게도 자신의 자식이 하루쯤을 더 못 기다려 눈앞에서 두 번째로 거꾸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신화를 삼킨 섬 2』, 203-204쪽)

군장의 그런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더라도, 아들을 한 번 더 만나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조차 못 본 채 바위째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거기서 하루만 더 참고 기다리면 아들이 다시 장수가 되어 바위를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마지막 하루를 마저 참아 넘기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아기장수의 꿈」, 『사랑의 손가락』, 131쪽)

이청준이 채택한 아기장수 전설에서 아기장수의 죽음에 연루된 부모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다른 피해자로 묘사되고 있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아버지가 군졸이 다그치는 바람에 ‘겁에 질려’ 전날의 일들 사실대로 고한다. 그리고 「아기장수의 꿈」에서 어머니는 회초리로 바위를 작게 만들어 아이와 함께 없애버리겠다는 관군의 거짓말에 ‘얼굴이

새파래져' 비밀을 털어놓고 만다. 결과적으로 이청준은 비극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가에서 나온 군장에게 있음을, 다시 말해 공포의 출처와 분노의 표적을 분명히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청준의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시대적인 질곡과 신분의 한계가 비극의 원인임이 명확해지고 신분이 미천하여 지배계급의 학정을 견디지 못한 부모의 고통 또한 비극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자신들의 아이를 생매장해야 했던 부모의 파괴적 행동을 좀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공포감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간주하는 까닭은 극단적인 경우에 자신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포스러운 일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때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볼 수 없고, 나아가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 정신이 돌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sup>15)</sup> 이청준의 단편소설 「소문의 벽」의 박준이 그런 경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청준이 생각하는 공포의 원형은 「퇴원」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소문의 벽」 등에서 전깃불 형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왔다. 전깃불 뒤에 가려져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백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우연, 즉 예측 불허의 사태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공포감정의 성격을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사례이다. 예의 이청준 소설에서 이해되지도, 통제되지도 않는 우연적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 결박당한 듯한 무력감을 느껴야 했고, 그에 따른 패배감과 공포감을 견디지 못한 주인공들은 마침내 광증을 보여야 했다. 이 지점에서 아기장수 전설에 나타난 부모의 기행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아울러 부모의 심리적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논리의 내면화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아기장수 전설에서 자식을 돌, 맷돌, 벼섬 등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부모의 행위가 덤덤하게 진술되고, 심지어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마을 공동체의 동의와 묵인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집단적인 최면 상태를 의심하게 한다.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

15) 구연상, 앞의 책, 67쪽 참조

프롤로그에는 ‘그 시절 나라에서는 용모니 힘이나 지혜 따위 남달리 비상한 징후를 지니고 난 아이를 뒷날 큰 영웅 장수로 자라 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관가로 잡아들여 죽여 없애곤 했고, ‘그런 아이를 몰래 숨겨 기르려 해다간 그 자식뿐 아니라 부모나 이웃까지 큰 화를 입게 마련’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sup>16)</sup>,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일종의 파놉티콘으로 기능하여 에필로그에서 부모를 영혼 없이 악역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희생자로 만든 것이다.

### Ⅲ. 아기장수 모티프의 소설적 변용

아기장수 전설의 정서적 바탕이 되고 있는 공포감정은 소설 『신화를 삼킨 섬』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요긴한 단서가 된다. 이 소설의 핵심인 물인 추 심방은 제주 섬사람들의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환기하는 인물이다. 제주의 무당을 뜻하는 심방은 무속의 제의인 굿을 주관하는 사제로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존재한다. 무당은 크게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뉘는데, 강신무는 신병 체험을 하고 내림굿을 거쳐서 된 무당이고 세습무는 가계의 무업을 전승받아서 된 무당이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제주 터주 당골 추 심방이 세습무에, 무병을 앓다가 내림굿을 받게 되는 금옥은 강신무에 해당한다. 이청준은 이러한 심방들의 존재에 아기장수 이미지를 절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세습무는 세습무계에서 거듭 무당이 배출되는 까닭에 특유의 세습 제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는다.<sup>17)</sup> 그는 개인을 상대로 무업을 하기도 하지만 마을의 전속 당골로서 마을굿을 주재한다. 『신화를 삼킨 섬』 시작 부분에서 나라가 주선한 역사 씻기기 사업에 동원되어 육지에서 온 무당 정요선이 제주 터주 심방 어른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현지 사정에

16)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2003, 13쪽

17) 이경엽, 「굿문화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 『남도민속연구』 20권, 2010, 233쪽 참조.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추 심방을 찾은 것은 공동체 안에서 부여된 당골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다. 추 심방은 작가가 노골적으로 아기장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인물로, 소설의 전반적인 정서가 아기장수 전설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겪고 무당이 되는 것은 대체로 강신무의 경우인데 세습무 추 심방의 무업인생 여정은 아우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어머니가 흰 용마 꿈을 태몽으로 꾸고 추 심방에게 무업을 이어받도록 했으나 추 심방이 그 뜻을 저버리자 어머니가 다시 아우에게 검은 용마 꿈 이야기를 하며 무업을 대물림하게 했고 아우는 자신에게 돌아온 무업 내림을 피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 끝내 종적을 감추고 만다. 결국 추 심방은 아우에 대한 속죄의 뜻으로 심방의 길을 자처하였기에 그에게 무업은 천직이자 천형인 셈이다.

이청준 소설에서 아기장수 모티프의 활용은 생소하지 않다. 예컨대 『당신들의 천국』에서도 금기를 어기고 출생하여 자란 이상욱에게서 아기장수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금지된 사랑으로 잉태된 이상욱은 밀실에서 비밀리에 출생하고 성장하는데, 그가 유년기에 경험한 공포의 이미지는 밀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까만 눈동자들로 구체화되었다. 전깃불의 또 다른 형상이기도 한 이 눈동자는 결과적으로 이상욱의 자유를 억압했고, 이러한 성장이력 때문에 공포감을 불치병처럼 지니게 된 이상욱은 진실의 폭로에 더 적극적인 인물이 되었다.

『당신들의 천국』의 이상욱은 정황상으로만 아기장수를 환기시키는 인물이었으나 『신화를 삼킨 섬』의 추 심방은 제주 섬사람들이 지닌 공포감의 정체를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인물이다. 추 심방을 위시하여 섬 심방들은 지배 권력에 동조하는 한얼회와 대항 세력인 청죽회 어느 쪽에도 뜻을 두지 않고 침묵하는데, 섬사람들의 침묵은 일종의 정신적 망명을 의미한다. 신군부가 주도한 ‘역사 씻기기 사업’은 권력의 정통성을 확립할 목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기억을 편의에 따라 정리하고 그것을 둘러싼 갈등을 피상적으로 봉합하려 했다. 청죽회와 한얼회가 4.3 항쟁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숫자를 놓고 대립할 때 제주민들이 그러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 것은 전면적 부정의 정서 때문으로, 거기에는 과거에 제주 섬에 들어와 지배 권력자가 되었던 김통정과 김방경을 함께 부인하던 모습이 오버랩 되어 있다. 정서적 망명 상태는 섬을 이탈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이어져, 소설 속에서 금옥은 요선에게 자신을 몰수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금옥의 모친 변심방 또한 금옥을 추만우와 짝지워 섬을 나가게 하고 싶은 심정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 유골의 죽음을 아는 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승의 삶을 구원할 저 아기장수의 꿈마저도 믿을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가짜 구세주를 기다리며 비참하게 속을 수가 없으므로. 이 섬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당신들마저 차라리 가없는 유배자로 거두어 긴 세월을 함께 해왔듯이. 유배자로 떠도는 그 결신들을 마을을 지키는 당신으로 맞아들여 이승의 삶을 근근히 함께 해왔듯이. 용두 마을의 추 심방네가 오로지 그들만을 씻겨왔듯이 이 섬사람들은 그래 그 백골들을 어느 한쪽의 영웅이나 구원자보다 이 섬사람들의 지난한 삶의 운명을 함께하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해원시켜 보내고자 한얼회나 청죽회 어느 쪽을 위해서도 결코 입을 열고 싶어하지 않는지 몰랐다. (『신화를 삼킨 섬 1』, 148~149쪽)

문제는 정신적 망명이든, 육체적 탈주든 어떤 대상으로부터 도피하도록 하는 충동의 근본적 계기는 역시 공포감정이라는 점이다. 공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이다.<sup>18)</sup>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의 통제능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공포감정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 더욱이 재난의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될 때, 그리고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는데도 학습되지 않아 번번이 무방비 상태로 감당해야 할 때 무력감과 공포감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체감된다.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공포감정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작가가 이 작품에서 제주 4.3 항쟁과 5.18 광주 민주항쟁을 개별적이

18)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157~158쪽 참조

고 특수한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비극적 사건의 중첩을 통해 인간적 한계를 직시함과 동시에 미지의 위협에 대응하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속신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재에서 신성존재로의 변신에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 문제를 신성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가 잠재되어 있는데<sup>19)</sup> 아기장수는 신적인 능력을 타고나고도 세계 구원에 실패한 영웅이므로 인간의 문제를 의탁하기에는 미력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함이 인간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음은 물론이다. 민중의 영웅으로 추앙받자 지배 권력자로 돌변한 김통정과 김방경과는 달리 아기장수는 비록 세계 구원에 실패한 영웅일지라도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기장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신성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결함을 지닌 인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된다. 이청준은 단편소설 「별레이야기」에서 종교적 차원의 용서와 인간적 차원의 용서를 구분하고 인간적인 용서가 불가능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신의 용서를 받은 범인을 피해자인 알암 어머니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줄 완전한 신성을 갖춘 영웅이 존재한다 해도 인간적 차원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신념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신화를 삼킨 섬』에서 아기장수를 믿지 못하면서도 기다리는 행위의 모순은 인간 문제의 해결이 신적인 영역이 아닌 인간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필로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섬사람들의 후일담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줄지에 바위가 갈라지고 세찬 햇빛과 바깥바람이 덮쳐들자 장졸들은 일시에 움직임을 멈추고 힘없이 스러져 갔고, 장수의 모습을 하고 꿰어앉은 아들은 반쯤 쳐들린 머리와 무릎을 마저 펴올려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무너지듯한 큰 한숨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으며 주위를 시뻘건 핏

19) 오세정, 「한국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회, 2007, 75쪽

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지 다시 슬픈 말울음 소리가 세 번 울리더니 갈라진 용마 바위 뒤쪽에서 눈부신 날개를 단 용마 한 마리가 불쑥 솟구쳐 올라 뒷산 너머 하늘로 멀리 사라져갔다. 새로 태어날 장수를 태우러 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용마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후부터 아기장수도 용마도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영웅 장수나 용마의 희마에 속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그 아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화를 삼킨 섬 2』, 204~205쪽)

간단히 말해 아기장수의 죽음 후 영웅장수도 용마도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았던 섬사람들이 구세의 영웅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다시 아기장수와 용마를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전설 형태로 전승되는 아기장수의 비극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쾌감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허구적 재현물 속에서 인물이 죽거나 고통 받는 것을 볼 때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다소 따르는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 이는 공포라는 정념이 우리를 압도할 만큼 가까이 오지 않는 한 기쁨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만족감은 그토록 불행한 이야기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다.<sup>20)</sup> 버크에 따르면, ‘비극적 사건에서 얻는 우리의 기쁨은 특히 주인공이 험난한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몰락하는 위대한 영웅일 경우 훨씬 고조된다’<sup>21)</sup>는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용마 출현의 의미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마의 출현은 아기장수의 죽음을 애도하고 증거하려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청준에게 있어서는 좀더 특별한

20) 에드먼드 버크, 김혜련 역,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 쾌와 고통에 대한 미학적 탐구』, 한길사, 2010, 111쪽

21) 에드먼드 버크, 위의 책, 113쪽

의미를 지닌다. 예의 에필로그에 나타나 있듯이 이청준은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아기장수와 용마의 실체가 아니라 꿈과 기다림이라는 자생적 에너지임을 역설하고 있다. 일반적인 유형과 달리 『신화를 삼킨 섬』의 아기장수 서사에서 용마는 용소에 빠져 죽지 않고 사라짐으로써 그 존재가 다시 활성화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인류의 오랜 토tem 숭배가 “자연과 인간의 동일시를 특징으로 하며, 토tem은 불가해한 자연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혼돈의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며 공포의 자연이 ‘이성’적으로 드러나게”<sup>22)</sup>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청준 소설에서의 용마 전설은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조차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숭고한 정신의 산물로 이해된다.

이 땅에서 되풀이되는 역사적 비극을 이야기하며 아기장수 모티프를 차용한 일차원적 이유는 물론 아기장수 전설의 서사가 민중적 항거의 패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층적인 이유는 되풀이되는 패배가 되풀이되는 항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짐작컨대 이청준이 제주를 무대로 한 소설을 쓰면서 날개만 제거한 제주의 아기장수 전설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이 끊임없는 모반의 역사를 반증하는 것임을 말하려는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죽음이 있기에 되살리는 일이 유의미해진다. 그런 점에서 『신화를 삼킨 섬』의 결말 부분에서 무병을 앓던 금옥이 추만우 집에서 ‘초신질 바르기’라는 내림굿을 받게 되는 장면은 짧지만 의미심장하다. ‘초신질 바르기’는 제주 심방가에서 새끼무당이 태어나는 신굿이다. 섬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금옥이 추 심방네 조상신령을 섬기는 신식구가 되는 것은, 이 땅에 권력에 의한 희생이 계속될지라도 희생자의 넋을 씻어내는 일 또한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끼무당의 탄생은 아기장수의 탄생처럼 모반의 상징이 된다.

22) 장파, 유중하 외 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203쪽

#### IV. 씻김굿을 통한 공포감정의 해소

『신화를 삼킨 섬』에서 제주 섬사람들이 공포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인간적 해결 방식은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씻김굿으로 구체화된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씻김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씻겨줌으로써 저승으로 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속적 제의이다. 억압된 충동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승화’라고 명명했던 프로이트의 견해에 기대면, 『신화를 삼킨 섬』에서 현실의 압력을 은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곳은 대표적인 승화의 소산이다. ‘가시적이지 않은 것의 형상이 본원적으로 가시화되도록 이끄는 것’<sup>23)</sup>이 메타포라면, 천도 과정에서 ‘넋풀이, 이슬털기, 넋올리기, 고틀이, 희설(시왕풀이, 육갑풀이), 천근풀이, 길담음, 하적’<sup>24)</sup> 등의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죽은 자가 경험할 비가시적인 세계를 가시적인 상태로 치환하여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씻김굿은 그야말로 고도로 정련된 메타포이다.

씻김굿의 계기가 되는 죽음은 인간의 삶이 유한함을 일깨워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상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죽음, ‘그대’의 죽음, ‘3인칭’이 아닌 ‘2인칭’의 소멸, 내게 가깝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상실, 나의 삶과 한데 얽혀 있는 사람의 영원한 부재만이 ‘특별한 철학적 경험’으로”<sup>25)</sup> 이어지는데,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은 관계가 종료되고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함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공포감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죽은 영혼을 달래고 화해와 상생을 도

23) 미셸 드기, 「고양의 언술 - 위(僞) 롱기누스를 다시 읽기 위하여」, 장-뤽 낭시 외 7인, 김예령 역, 『승고에 대하여』, 문학과 지성사, 2005, 19쪽

24) 박미경, 「전통 굿(예술)이 지닌 소통과 치유의 기재」, 『한국무속학』 제30집, 한국무속학회, 2015, 144쪽

25)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78-79쪽

모하는 씻김굿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시화함으로써 공포감을 해소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은 제주에 온 육지 무당 유정남의 씻김굿 절차를 묘사하는 데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 작품의 「작가의 말」에서 이청준은 “우리 무격(무당)굿은 남북과 동서 각 지방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많이 달라 그 원형을 크게 손상함이 없이 이 소설 줄거리에 빌어쓰기가 거의 불가능했다”<sup>26)</sup>고 창작상의 고충을 밝히고 각 지역 고유의 굿 형식이나 내용에서 소설에 필요한 조작과 변형을 감행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품 안에서 씻김굿의 각 재차인 안당굿, 액막이, 처올리기, 제석굿, 선영굿, 씻기기, 고풀이, 냇올리기, 길뉘기 등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씻김굿의 핵심에 해당하는 씻기기와 고풀이에서는 무가와 가시적인 연행을 묘사하면서 고종민의 시선으로 굿의 의미를 해석한다. 다음은 씻기기의 한 대목이다.

맑은 물로 씻기실 때 상탕에는 머리 감고 중탕에는 몸을 씻고  
하탕에는 열 손발 고이고이 씻기시니  
진옷 벗어 내던지고 마른 옷 갈아 입고 왕생극락 옥경연화당.....

두 무녀는 그렇듯 쑥물과 향물, 맑은 물로 차례차례 망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생전의 모든 한을 씻겨냈다. 살아생전 가슴에 쌓이고 맺힌 원망과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씻겼다. 차마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가없는 녀의 부정을 씻겼다. (『신화를 삼킨 섬 2』 171쪽)

여기서 ‘망인들의 신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영돈말이’라는 것으로, 돛자리 위에 망자의 옷을 갖추어 놓은 뒤 돛자리를 둘둘 말아 짚으로 매듭을 묶은 것을 말한다. 소설에서 유정남은 신딸들에게 영돈말이를 세워 잡게 하고 쑥물, 향물, 맑은 물을 빗자루에 묻혀 골고루 씻겨낸다. 이승에서의 부정을 씻어내는 이 과정은 망자가 저승에 갈 준비를 하는 정화의례로서, ‘몸(영돈)과 영혼(녘)이 정화된 망자는 새 옷으로 갈아입

26)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앞의 책, 6쪽

고, 새로운 존재로 전환할 준비를 마치는 것'<sup>27)</sup>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고풀이 대목이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 천여리나 만여리나  
 세경각시 내왕연으로 설설이 풀리소서  
 불쌍한 망자씨가 어느 고에 맺히셨소.....

유정남은 조만신의 단조로운 징 가락에 맞추어 그 가혹한 이승업보의 고에 매인 망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가볍고 절제된 춤사위와 노랫가락 속에 그 고 뱃가래를 가볍게 감아 흔들고 돌아갔다. 망인의 마음이 풀려 이승의 한을 다 벗어놓지 않으면 그 혼백이 아직 저승길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 매듭은 바로 이승에 혼자 살아남은 자손의 삶의 슬픔과 괴로움의 매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가 풀려야 혼자 살아남은 자식도 그 동안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남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를 삼킨 섬 2』, 174-175쪽)

고풀이에서의 '고'는 '망자가 지닌 이승에서의 회한을 의미하며, 그 고가 하나씩 풀려 나가는 것은 망자가 이승의 결박에서 풀려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구상화한 것'<sup>28)</sup>이다. 한이 많은 혼백은 저승에 갈 수 없다는 인식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지역(호남지역)에서는 고를 푸는 의식을 통해 망자는 이승에서의 미련을 버릴 수 있다고'<sup>29)</sup> 믿는다. 나아가 고의 맺힘은 죽음을, 고의 풀림은 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고풀이는 죽음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조령(祖靈)의 세계로의 전환'<sup>30)</sup>을 상징한다. 죽은 자에게 있어 고의 풀림은 영혼의 해방이자 새로운 존재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27) 최진아, 「무속의 죽음의례상징물이 갖는 의미」, 『비교민속학』 56집, 비교민속학회, 2015, 332쪽

28) 이경엽, 「셋김곳 무가의 연행 방식과 그 특징」,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306쪽

29) 최진아, 앞의 글, 330쪽

30)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278쪽

위의 인용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이청준이 고를 ‘이승에 혼자 살아남은 자손의 삶의 슬픔과 괴로움의 매듭’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 자로서도 고가 풀려야 삶을 용기 있게 추동해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씻김굿은 망자의 천도가 주목적이지만 그 배면에는 현세적 삶의 안녕에 대한 희구가 깔려 있다. 사실상 ‘굿을 통해 죽음이라는 사건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sup>31)</sup>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산 자의 고가 풀리는 과정을 이청준은 유정남의 씻김굿에 참석한 기주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준다. 기주 김상노 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채 새로 발굴된 4.3 희생자 유골 아홉 구 가운데 청죽회 쪽에서 찾아낸 유족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고 살아남은 제주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정요선, 고종민과 같은 외지인의 눈에 포착된 제주 사람들은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김상노 씨도 예외가 아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억압에 의해서 해로운 영향을 받은 본능 충동에서 생긴다고 본다. 만일 자아가 불쾌하다는 신호를 이용하여 본능 충동을 완전히 억누르는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 억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나,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억압이 다소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례들에서만”<sup>32)</sup>이라는 것이다. 가령, 이청준의 단편소설 「빈 방」의 주인공이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게 시달리게 된 딸꾹질도 억압이 다소 실패한 경우라 할 것이다. 『신화를 삼킨 섬』의 제주 섬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무표정과 침묵은 일종의 증상이기도 하고, 의도적인 억제이기도 하다. 프로이트는 억압의 부분적인 실패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달리 단순히 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억제’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어떤 억제는 분명히 기능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기능의 실행이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sup>33)</sup>이라는 것이다. 이청준 작품의 주인공들이 소설

31) 이경엽, 「굿문화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 『남도민속연구』 20권, 2010, 239쪽

32) 프로이트, 『억압, 중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8, 227쪽

가, 기자, 판사 등과 같이 말과 관련된 직업에 속해 있었고, 공통적으로 “진실의 진술이 필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진술만이 필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진실의 진술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신적인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미치거나 때로는 죽거나 때로는 글을 쓸 수 없게 된다.”<sup>34)</sup>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 비추어 볼 때 『신화를 삼킨 섬』의 제주 섬사람들의 행동양태는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언어로 구사하기를 포기하거나 억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이청준은 말하기를 금지 당했던 과거 주인공들과 달리 말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인물들을 새롭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남의 곳 구경하듯 덩덤한 얼굴을 하고 있던 김상노 씨가 유정남의 셋김곳이 끝나갈 무렵에 느닷없이 통곡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유의 효과로 읽힌다.

유정남이 다시 어린아이 다루듯 반말 투로 그를 나무라고 달래며 그쪽 어깨를 부추겨 일으키려 하였다.

“자, 그러니 손자씨도 이제 할머니님이나 숙부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먼 길 가시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보내 드려야제. 자 어서, 어서!”

“이제 그만 내버려두고 형님은 이리 와 춤이나 추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 뜻하지 않은 두 사람 간의 소동을 버려둔 채 어깨를 짐짓 흥겹게 들썩이고 돌아가던 조복순이 보다 못해 그 유정남을 자신들의 춤판으로 끌어들이며 아직도 떠나간 할머니타령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 김상노씨를 향해 야단치듯 소리쳤다.

“그래, 울어, 실컷 울어! 기주씨는 이제사 긴 세월 집안 귀신들 가위눌림에서 풀려난 게야. 그래 인제서 눈물이 나고 통곡이 터져나온 게야. 그러니 실컷 울고 소리쳐서 마음속 어둠을 시원하게 다 씻어내어!” (『신화를 삼킨 섬 2』, 184쪽)

한국 무속에서는 원한이 많은 망자는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33) 프로이트, 위의 책, 219쪽

34)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96쪽

떠돌며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천도국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동시에 위무하는 의례인 것이다. 특히 위의 김상노 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산 자에게 ‘씻김굿은 무당의 노래와 춤을 통해 망자의 넋을 위로하여 극락왕생 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정화시켜주는 치료적 기능을 수행<sup>35)</sup>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포감은 대상이 일상성을 벗어났을 때 생기는 감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는 자기 망각이나 상황에 대한 체념을 초래할 정도로 위협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런데 일상적이지 않고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심연의 세계, 이면의 세계는 안전거리만 유지될 수 있다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무대가 된다. 송고미를 공포와 자기보존 감각으로 보고 논의를 진전시켰던 버크의 견해를 참조하면, 인간은 자기보존본능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때 커다란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되지만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되면 커다란 환희를 느끼게 된다.<sup>36)</sup> 공포스러운 대상과의 거리가 사라졌을 때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포는 쾌감을 유발할 수 없으나 거리를 유지하는 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쾌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는 것<sup>37)</sup>을 의미하듯, 인간은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초극할 수 있는 용기와 정신력을 지녔으며 이로 인해 불쾌감을 쾌감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화를 삼킨 섬』의 섬 심방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지대를 마련하여 치러내는 굿은 공포를 초극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라 할 만하다.

35) 표인주, 「슬픔과 분노의 민속학적인 치유 메커니즘」, 『호남문화연구』 54권, 호남학연구원, 2013, 326쪽

36) 안성찬, 『송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2004, 94쪽

37) 구연상, 앞의 책, 119쪽

## V. 마무리

이 글에서는 이청준 소설에서 아기장수 전설과 굿 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 심층적 의미를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아기장수 전설은, 지역에 따라 여러 이본이 존재하나 선천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 아기장수가 시대적 한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은 아기장수 전설을 메타포로 삼아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그 근원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을 배경으로 4.3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내용의 이 소설은 두 역사적 사건의 중첩을 통해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의 반복에 대해 사유한다. 즉 이 소설의 공포감정은 인간의 유한성을 확인시키는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한 번에 종결되지도 예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의 자각에서 오는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다.

아기장수 전설의 여러 이본 가운데 이청준이 작품의 소재로 채택하고 변용한 아기장수 서사는 비극의 원인이 시대적인 질곡과 신분의 한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신분이 미천하여 지배계급의 학정을 견디지 못한 부모의 고통 또한 비극으로 간주된다. 자신들의 아이를 생매장해야 했던 부모의 파괴적 행동은 권력의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에 따른 패배감과 공포감을 견디지 못해 나타난 분열적 행동인 셈이다. 아울러 그들에게는 가해자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있다. 권력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부모로 하여금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영혼 없이 악역을 연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또 다른 희생자로 만든 것이다.

아기장수 전설의 정서적 바탕이 되고 있는 공포감정은 『신화를 삼킨 섬』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요긴한 단서가 된다. 이 소설의 핵심인물인 추 심방은 제주 섬사람들의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환기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공포감정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작가가 이 작

품에서 제주 4.3 항쟁과 5.18 광주 민주항쟁을 개별적이고 특수한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비극적 사건의 중첩을 통해 인간적 한계를 직시함과 동시에 미지의 위험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청준이 이 땅에서 되풀이되는 역사적 비극을 이야기하며 아기장수 모티프를 차용한 것은 되풀이되는 패배가 되풀이되는 항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금옥이 무병을 앓다가 추만우 집에서 ‘초신질 바르기’라는 내림굿을 받게 되는 장면은 이 땅에 권력에 의한 희생이 계속될지라도 희생자의 넋을 끊임없이 씻어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모반의 상징이 된다. 이는 에필로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아기장수와 용마의 실체가 아니라 꿈과 기다림이라는 자생적 에너지임을 작가가 역설하고 있는 것과는 상통한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제주 섬사람들이 공포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인간적 해결 방식은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씻김굿으로 구체화된다. 씻김굿의 계기가 되는 죽음은 인간의 삶이 유한함을 일깨워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상이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공포감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죽은 영혼을 달래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씻김굿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시화함으로써 공포감을 해소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이청준은 제주에 온 육지 무당 유정남의 씻김굿 절차를 묘사하는 데 특별히 공을 들인다. 그 가운데 ‘고풀이’ 대목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이청준이 고를 ‘이승에 혼자 살아남은 자손의 삶의 슬픔과 괴로움의 매듭’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씻김굿은 망자의 천도가 주목적이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현세적 삶을 위한 기원이 배면에 깔려 있다. 산 자의 고가 풀리는 과정을 이청준은 유정남 씻김굿에 기주로 참석한 김상노 씨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씻김굿이 산 자에게 슬픔과 분노를 정화시켜주는 치료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아기장수를 믿지 못하면서도 기다리는 행위의

모순은 문제의 해결이 신적인 영역이 아닌 인간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제주 섬사람들이 선택한 인간적 해결 방식이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씻김굿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포감은 대상이 일상성을 벗어났을 때 생기는 감정으로, 극단적으로는 자기 망각이나 상황에 대한 체념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런데 불가해한 세계는 안전거리만 유지될 수 있다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무대가 된다. 따라서 『신화를 삼킨 섬』의 섬 심방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지대를 마련하여 치러내는 굿은 공포를 초극하려는 의지의 표출이라 할 만하다. 이청준은 아기장수의 죽음 후 영웅도 용마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려 했던 섬사람들이 다시 꿈과 기다림을 통해 삶의 동력을 얻는 모습에 주목한다. 인간이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 모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씻김굿은 인간의 문제를 신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존적 행위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기구제의 수단이 된다.

### <참고문헌>

-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2003
- \_\_\_\_\_,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왔나」, 『장흥문화』 제121호, 1999
- \_\_\_\_\_, 「아기장수의 꿈」, 『사랑의 손가락』, 문학수첩, 2006
- 고인환,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 4.3 항쟁의 전용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 김창현, 「아기장수설화에 나타난 한국 민중들의 생명관」, 『인문과학』 33권, 성균관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03
- 김환희, 「설화와 전래동화의 장르적 경계선 -아기장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1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1
- 박미경, 「전통 굿(예술)이 지닌 소통과 치유의 기제」, 『한국무속학』 제30집, 한국무속학회, 2015
-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_\_\_\_\_,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 인식의 층위 - 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 연남경, 「신화의 현재적 의미 - 최인훈, 이청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 오세정, 「한국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회, 2007
- 이경엽, 「씻김굿 무가의 연행 방식과 그 특징」, 『비교민속학』 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289-313
- \_\_\_\_\_, 「굿문화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 『남도민속연구』 20권, 2010, 201-246
- 임철호, 「아기장수 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3집, 구비문학회, 1996
- 장석만, 「한국 신화 담론의 등장」, 『종교문화비평』 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 조명기,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 -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3집, 한국언어문학회, 2010
-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 『설화』, 민족학회 편, 교문사, 1989
- 최진아, 「무속의 죽음의례상징물이 갖는 의미」, 『비교민속학』 56집, 비교민속학회, 2015
-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 현길연,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 - 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 언어문학』 17, 18집, 한국언어문학회, 1979
- 표인주, 「슬픔과 분노의 민속학적인 치유 메커니즘」, 『호남문화연구』 54권, 호남학연구원, 2013
- 구연상,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 청계, 2001
-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 안성찬, 『송고의 미학』 -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2004
-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 에드먼드 버크, 김혜련 역, 『송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 쾌와 고통에 대한 미학적 탐구』, 한길사, 2010
- 장-뤽 낭시 외 7인, 김예령 역, 『송고에 대하여』, 문학과 지성사, 2005
- 장파, 유중하 외 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 프로이트,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8

## Abstract

*Novelistic acceptance of The myth of the baby warrior and Ssitgingut – Focusing on Fear expression and resolution method in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 Lee, Joo mi

Any situation that cannot be understood logically may arouse fear. The state of it recalls men of their own helplessness and mortality.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having the tragedy repeated historically as its subject matter reveals various aspects to deal with the feeling of horror.

Lee Cheong-jun mostly takes the healing of a wound or self-help as his theme.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is also positioned in the extension of it, but what is noteworthy is that he seeks the way of solving problems in the level of a community with it. Lee Cheong-jun's past novels present horror with the form of flashlight. In the situation that their fate depends on coincidence, the main characters end up turning into a maniac failing to endure the severe horror. On the contrary, the main characters in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show attitudes coping with similar situations either with indifference or silence consistently. And, the concrete messages of silence come to be disclosed plainly through the translation of outsiders or those concerned, for example, Jeong Yo-seon or Go Jong-min.

The horror of islanders appearing in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is expressed indirectly through the myth of the baby warrior. The writer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islanders unwilling to wait for any hero or swift horse any longer after the death of the baby warrior again grasp the power of life through dreaming as well as waiting. Since its precondition is to understand such human irony, 'ssitgingut' that this work deals with is not the act of solving human problems through divinity but a means of self-help to bring life to the community which can get rid of anxiety and horror.

Key words: fear, helplessness, mortality, human irony, the myth of the baby warrior, ssitgingut.